특별기고

대세로 등장한 스마트폰 SNS 시대에서의 청소년 인터넷 윤리

정진욱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

목 차 »

1. 글머리에
2. 인터넷, 스마트폰, 유아 및 청소년 이용율 급증 추세
3. 스마트폰 SNS에서의 불법사례 급증
4. 스마트폰 SNS의 또 다른 문제들
5. SNS 이용자는 미디어의 발행자임을 깨달아야
6. SNS의 오남용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들
7. 대응방안으로는
8. 이용자 스스로의 게이트키핑이 요구

1. 글머리에

스마트 기기의 대표 주자인 스마트폰은 인터넷 이용의 주 단말기였던 PC를 밀어 내고 점차 인터넷 접속 단말기의 주역의 자리를 향해 내닫고 있다. 그리고 어느덧 휴대 전화기의 주 기능도 음성통신에서 인터넷 통신/문자 통신으로 변화하고 있다. 음성통신 위주의 단말기는 소형화가 미덕이었으나 디지털 네이티브/영상 세대의 등장에 맞추어 휴대전화기는 스마트 폰으로 변모하면서 고화질 대형화면이 새로운 미덕으로 등장하고 있다. 최신 기종 일수록 초고화질, 대형 화면이 자랑거리이고 코아 수를 늘려 가면서 처리속도, 통신속도 등도 유선 인터넷을 따라잡고 있다.

스마트폰과 SNS는 특별한 상관 관계를 갖고 있다. 대부분의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페이스북, 트위터와 카카오톡을 필수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다. 국내 3500만을 포함 7000만명의 이용자를 확보 하고 있는 카카오톡은 이미 모바일 소셜미디어의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페이지 등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면서 모바일 SNS의 강자로 자리 매김 하고 있다. 국내 가입자 1000만명을 포함 전세계적으로 10억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페이스북 또한 무선 인터넷 전화를 포함한 통합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예 자체 스마트폰 생산 계획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심지어 SNS를 위해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듯 스마트폰 3000만 시대, 본격적인 SNS 시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스마트폰과 SNS의 이용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성장기 청소년들의 생활에 부정적인 문화가 없는지 그리고 이들 역기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인터넷, 스마트폰, 유아 및 청소년 이용율 급증 추세

2012년 7월 현재 만 3세 이상의 인터넷 이용율은 78.4%로서 전년 대비 0.4% 증가하여 이용자 수로는 3천 8백 12만명을 돌파하고 있다. 2004년에 이용률이 70.2%를 넘어선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 하여 오고 있으며 80%에 가까워진 최근 몇 년 동안은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를 정도로 증가의 폭이 1% 미만에 이르고 있다. 다만 10대 20대 30대등의 이용률은 99%를 넘어 거의 100%에 이르고 40대 50대 60대 70대의 이용율 증가폭은 1% 포인트에서 3% 포인트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 비해 3-5세 유아의 이용률은 전년 대비 6.6% 포인트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큰 증가를 보이고 있어 주목해야 할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국내 스마트 폰 보급 대수가 3000만대 시대에 이른 2012년 9월 현재 12세에서 59세 인구의 87%가 휴대전화, 노트북 등 무선 단말기로 이동통신망(2G/3G) 무선 랜, 와이브로, LTE 등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한 인터넷 이용자 인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2011년(65.2%) 대비 21.8% 포인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2002년의 32.3%에서 10년 사이에 3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02년 59.4%에서 2012년 78.4%로 19.0% 포인트 증가한 인터넷 전체 이용률과 비교해 보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눈에 띄는 통계는 12-19세 93.4%, 20대 99.4%, 30대 93.4%, 40대 84.4%로 중고등학교와 대학생들만 본다면 인터넷 이용자의 대부분이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무선 인터넷 이용자의 90.3%가 스마트폰을 통해 무선 인터넷에 접속 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노트북, 일반 휴대전화, 스마트패드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밝혀져 스마트폰이 무선 인터넷 접속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무선 인터넷 이용자 중에서 만 12세에서 59세 인구의 78.5%가 스마트폰 이용자이며 연령별로는 20대가 97.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30대(90.9%), 12-10세(80.7%), 40대(74.1%)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신규 스마트폰 이용자 구성비를 보면 12세-19세 사이 연령대가 2011년 13.0%에서 24.6%로 거의 두배로 증가하여 20대의 18.5%를 상회 하고 있으며 30대의 24.1%와 거의 대등해 지고 있다. 이러한 수치 또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소유가 가장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기기 이용자의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70.3%가 SNS, 메신저 등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도움을 받고 있으며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정보습득 공유 활동이 증가 하였다는 응답이 65.3%로 뒤를 잇고 있다.(중복응답)

이상의 통계들이 의미하는 바를 요약하면 국내 유선 환경에서의 인터넷 이용은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며 점차 스마트폰을 중심으로한 무선 인터넷 이용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를 포함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활용 비중이 빠른 속도로 커가고 있고 음성통화 위주의 이용에서 소셜 미디어의 역할을 하는 SNS, 메신저 등의 커뮤니케이션 수단과 정보 획득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3. 스마트폰 SNS에서의 불법사례 급증

금년 초에 발표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KOCSC)의 2012년 SNS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시정 요구 건수는 2008년 36건, 2009년 64건에 불과했으나 2010년 345건, 2011년 780건으로 증가했고 2012년은 전년 대비 약 6배 늘어난 4,454건에 이르렀다. 이는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과 함께 SNS 이용자 수가 빠르게 늘어 나면서 SNS에 게재되는 불법정보도 급격히 증가된 것으로 해석된다.

불법정보의 내용도 다양하여 불법 식의약품 및 마약 판매 정보가 2,601건(58.4%), 불법 도박 사이트 안내 정보 링크 등 도박 정보가 1,000건(22.5%), 음란 및 성매매 알선 정보가 250건(5.9%)등이며 주민등록증, 졸업증명서 등 공사문서위조, 대포통장 등 불법 명의거래, 장기매매 등 기타 법령 위반 정보가 603건(13.5%)등으로 나타났다. 불법정보는 문자 그대로 실정법에 위배되는 사회적으로 유해성이 명백한 표현물이다.

위의 불법 사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대부분 제44조 7항의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조항의 위반이나 제50조 8항의불법 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전송 금지 조항의 위반으로 제 44조 7항의 경우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50조 8항의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 이상의 통계는 명확한 불법의 경우이나 불법은 아니더라도 불건전한 이용 또한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 SNS나 스마트폰의 중독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12월의 경기도 소비자 시민 모임의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하루 평균 1-2시간 이용자가 32.6%, 2-3시간 이용자가 23.6%, 3-4시간 이용자가 16.5% 순을 보이며 4-5시간 사용한다는 응답자도 10.3%에 이른다. 조사 대상 1037명의 청소년 중 50% 이상이 하루에 2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기 위해 조회시간에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맡아두었다가 종례시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자 학생들 중 일부는 휴대전화 한 대를 더 마련하여 조회시 한 대는 학교에 맡기는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한 대로 학교생활 중에 계속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수업 시간 중에까지 문자를 주고 받거나 카톡을 하는 학생들 때문에 학교나 교사들이 학생들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가히 중독 수준 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정보화진흥원의 2011년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를 보면 만 5세에서 9세 사이의 인터넷 중독율은 7.9%, 10세에서 19세 사이의 청소년은 10.4%였다. 20세에서 49세 사이의 성인 중독율 6.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스마트폰/SNS 중독실태를 보면 스마트폰 중독 진단 척도를 적용해 4000여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1.1%가 중독으로 판단되었다. 그 중 0.1%가 고위험군으로 그리고 나머지 11%가 잠재적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사항은 인터넷 중독으로 분류된 사용자들의 30.2%가 스마트폰 중독자로 나타나 일반 사용자(9.2%)보다 3배 이상의 수치를 보여 인터넷중독과 스마트폰 중독의 높은 연관성을 볼 수 있다.

한편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율은 25.2%로 성인 9.4%보다 훨씬 높은 중독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율이 성인의 인터넷 중독율 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과 유사한 현상으로 여기서도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의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SNS 사용 실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2%(매우 그렇다 0.3%,그런 편이다 5.9%)가 스스로 SNS를 과다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인터넷 중독율 보다

스마트폰의 중독율이 훨씬 높은 사실에 주목 하여야 할 것이다. 성인과 청소년 모두 스마트폰의 중독율이 인터넷 중독율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특히 청소년의 경우 2배 이상 스마트폰 중독율이 높은 것이 특별히 눈에 띄는 통계 수치이다.

4. 스마트폰 SNS의 또 다른 문제들

일반적으로 유선 인터넷에서 발생하고 있는 역기능 문제와 부정적인 문화들이 스마트폰 으로 그대로 옮겨 오고 있는 현상이 눈에 보이고 있다. 뿐만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휴대성과 PC와는 달리 철저히 개인화된 단말기의 성격상 PC를 사용한 인터넷 중독의 경우보다 더 쉽게 중독에 빠질 수 있고 음란물, 유해 정보 등의 전파 속도가 유선 인터넷의 경우보다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초등학생들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소유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스마트폰과 SNS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선 인터넷 보다 더욱 심각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 되고 있다.

SNS의 일반적인 위협 요소로 거론 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노출 가능성에 따른 프라이버시 위협, 무선 통신구간을 포함하고 안드로이드 등 공개 운영체제의 사용에 따르는 여러 가지 형태의 보안 위협,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 인포데믹스 등 표현의 자유와 연관된 사회적 위협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곳에서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곳에서 다시 반복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독자들께서는 뒤에 제시된 참고문헌을 보실 것을 권해 드리며 이곳에서는 어찌 보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SNS의 미디어로서의 성격을 한번 더 되짚어 보고 별개의 시각으로 의학계에서 지적되고 있는 유아 청소년기의 스마트폰 이용의 문제점을 소개하기로 한다.

5. SNS 이용자는 미디어의 발행자임을 깨달아야

SNS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어떤 매체보다 모든 이용자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이다. 사실 인터넷 이전의 시대에서는 어떤 개인이 어떤 사실을 퍼블리시(Publish)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채널은 국가나 거대 기업의 전유물이었고 그러한 채널을 이용해 퍼블리시 할 수 있는 사람은 잘 훈련된 소수의 전문가들이었다. 신문이 그러하고 TV가 그러하였고 라디오가 그러하였다.

채널 구축에는 많은 자원이 필요하였고 전파 채널은 한정된 자원이었다. 그러나 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우선 유선방송(케이블 TV)의 등장으로 공중파 시대에는 5, 6개 불과하였던 채널이 수백개로 늘어나게 되었고 인터넷의 등장으로 채널의 수는 무한으로 늘어나고 값싼 자원이 되었다. 모든 인터넷 이용자에게 발행자(publisher)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SNS가 바로 그 매체이고 채널이다. SNS에 글을 올리는 모든 사람은 발행자가 되었다. SNS 이용자는 무엇보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발행자는 발행물에 책임을 져야 한다. SNS 이용자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기존 매체와 전문 발행자들은 발행물에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발행물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확하거나 타인의 정신적 재화적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고 때로는 본인의 직업을 잃기도 한다.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매체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게이트 키핑이다. 이러한 사실을 SNS 이용자 들이 깨닫도록 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6. SNS의 오남용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들

SNS의 오남용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선거에서는 의도적인 오남용이 선거의 결과에 결정적인 문제를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물론 카카오톡 등에 의한 학생들간의 왕따 문제로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사례들도 자주 보고 되고 있다. 때로는 인포데믹스에 의해 국가 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특히 트위터 등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낯선 상대방을 상대로 하는 퍼블리싱에서 이러한 문제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최근 의학계에서 보고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관련된 이야기이다. 중앙일보(2013.1.7)에 따르면 스마트폰에 빠진 아이들의 뇌 발달이 늦어지거나 스마트폰을 쓰는 과정에서 뇌 발달이 정지되기도 하고 감정을 관리하는 뇌 영역이 붕괴될 수도 있다고 한다(강남성신병원 이홍석교수). 이교수에 따르면 3세 이전에 뇌 발달 속도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 초등학교, 중학교 순이며 시기마다 뇌가 집중적으로 발달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때 한창 스마트폰을 쓰게 되면 뇌가 발달할 기회를 놓쳐 버린다는 것이다. 스마트폰 사용시 아이의 뇌 발달이 정지되는데 그 이유는 사람의 뇌는 예측할 수 없는 대상과 오감을 통한 상호 작용을 할 때 고르게 발달하는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뇌를 구성하는 수만개의 회로 중 일방적인 영상을 받아들이는 단 하나의 회로만 동작하기 때문에 그 동안 다른 회로는 쓰지 못해 점점 퇴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스마트폰의 사용은 감정을 관할하는 뇌 영역도 붕괴시켜 타인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 떨어지고 시공간에 따른 감정조절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떨어져 결과적으로 눈치도 없고 참을성도 없어지며 돌발 행동이 빈번해 질 수 있어 이러한 아이들이 성인되었을 때 패륜이나 묻지마 살인 사건 등이 더 많아 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너무나 심각한 한 문제임에도 요즈음의 젊은 엄마들이 어린 아이들을 달래는 수단으로 스마트폰을 아이에게 맡기고 있는 것을 보면 염려스러운 바가 매우 크다.

7. 대응방안으로는

우선 청소년 당사자, 학부형, 학교와 교사 모두가 스마트폰과 SNS가 청소년의 정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루에 두시간 이상 자녀와 대화를 하는 가정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학교도 마찬가지이다. 학생들이 수업을 받기 위해 교사와 대화하는 시간은 쉽게 7, 8시간이 되겠지만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 주고 상담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는가? 50% 이상의 학생들이 하루 2시간 이상 스마트폰/ SNS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스마트폰과 SNS가 부모와 교사 이상으로 청소년들의 인성형성과 가치관 형성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많은 청소년들이 게임을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친구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사용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동료들간의 상호 교육에 스마트폰과 SNS가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부모나 교사의 잔소리 대신에 동료들간의 상호 교육과 인터넷정보 환경이 청소년들의 인성, 가치관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전문적인 연구그룹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세우고 효율적인 교육방안과 교재 개발 등이 이루어 져야 한다. 유아의 경우 몇 세부터 스마트폰의 이용이 허용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사용을 시작해야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등을 연구하고 연구 결과가 실행에

옮겨지도록 홍보하고 지도를 담당할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먼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며 효과는 더디게 나타나는 교육의 특성상 정부는 인터넷 윤리 교육에 관심과 투자를 기울이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하지만 인터넷 리터러시, SNS 리터러시 교육만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정보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포털과 SNS 플랫폼 사업자들은 본인들의 책임을 인식하고 청소년 대상의 인터넷 교육에 관심을 갖고 시간과 재정 투자를 해야 한다. 요즘 많이 논의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도 플랫폼 사업자들의 관심이 요구 된다.

언어에는 문어와 구어가 있다. 문어는 사람의 생각을 글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구어는 사람의 생각을 말 문장으로 표현 하는 것이다. 문어는 기록으로 남아 생명력이 무한하고 구어는 표현과 동시에 허공으로 사라져 기록이 남지 않는다. 구어인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남겠지만 그 사람의 기억의 한계까지만 남기 때문에 다시 기록으로 문장화 하지 않는 한 생명력은 유한하다. 구어는 동시성(real time) 퍼블리싱이고 문어는 비동기성/비동시성 퍼블리싱이다. 구어는 생각과 동시에 생각이 말이 되어 남에게 전달 된다. 문어는 생각을 정리하여 문장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퍼블리싱이 이루어지는 2단계를 거친다. 따라서 구어는 생각을 정리하고 여러번 교정할 수 있는 기회까지 갖는 문어보다 생각을 정리하고 정제하여 퍼블리싱 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구어의 경우에는 잘 못 표현하거나 상대방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문어 보다 훨씬 크다. SNS 퍼블리싱은 그 대상자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실수했을 경우의 파급력도 매우 크다.

8. 이용자 스스로의 게이트키핑이 요구

SNS 언어는 문어일까 구어일까? 형식상 문어이다. 문장으로 기록이 남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마트폰/SNS의 언어는 많은 구어의 특성을 갖고 있다. 모든 SNS 언어가 구어가 아니기는 하지만 동시성 퍼블리싱의 특성을 갖는 SNS의 특성상 구어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정부나 플랫폼 사업자들의 노력 보다 더 중요한 일이 SNS 언어 생활을 바르게 하는 일이고 이는 전적으로 SNS 사용자 개인의 일이다. 가능하면 구어의 특성 보다는 문어의 특성을 갖는 SNS 언어 생활을 하도록 모든 인터넷 스마트폰 SNS 이용자들이 노력한다면 우리의 사이버 세상이 훨씬 정화되고 명랑해 질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SNS 이용자들이 퍼블리싱 전에 스스로 생산 하는 정보를 게이트키핑 과정을 거친 후 퍼블리싱 해야 한다는 말이다.

참 고 문 헌

[1] 인터넷윤리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 저 2011.3 이한 출판사.

[2] 인터넷& 시큐리티 2010.3 한국인터넷 진흥원

[3] 중앙일보 S3면 2013.1.7 “스마트폰에 빠진 유아 어린이 뇌 발달 늦어진다.”

[4] 인터넷윤리(불의선물) 정진욱외 2인공역 2011.12 생능 출판사.

[5] 2010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한국정보화진흥원

[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 자료 “2012 SNS불법잘정보 심의 결과 발표” 2013.1.17

[7] 2012년 상반기 스마트폰 이용 실태조사 2012.8 한국 인터넷 진흥원.

[8]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실태조사 2012.11 경기도 소비자 시민 모임.

저 자 약 력

정 진 욱

이메일 : jwchung46@gmail.com

- 1974년 2월 25일 성균관대학교 전기공학과 (학사)
- 1979년 2월 25일 성균관대학교 전자공학과(석사)
- 1991년 2월 25일 서울대학교 전산학과(박사)
- 1973년 9월 1일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전자계산실 연구원
- 1985년 3월 1일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대학 컴퓨터공학 교수
- 1991년 3월 1일 메릴랜드 대학교 방문교수
- 2002년 1월 1일 한국정보처리학회 회장
- 2007년 9월 1일 성균관대학교 일반 대학원장
- 2008년 3월 1일 성균관대학교 학술정보관장
- 2007년 1월 1일 정보기술전문가협회 부회장
- 2008년 1월 1일 인터넷윤리실천 협의회 공동회장
- 2011년 9월 1일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현)
- 2012년 1월 1일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 대표회장(현), 정보기술전문가사협회 고문(현)